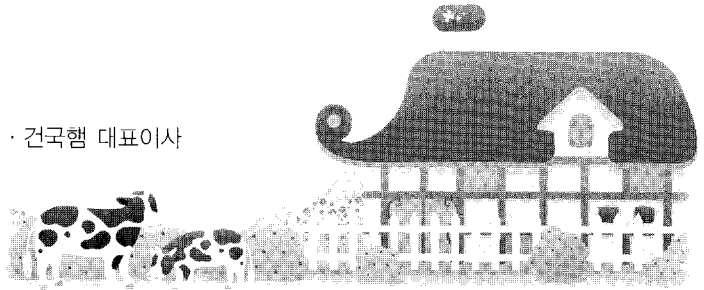




건국유업 · 건국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홍양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건국유업 · 건국햄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건국유업 · 건국햄은 지난 1964년 국내 축산업의 메카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모태로 설립되었다. 설립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설립이념인 “誠·信·義”를 근간으로 “국민건강과 장학사업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기업이념이다.

당사는 지난 2005년까지 건국유업과 건국햄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관련사업의 시너지효과 배가 및 경영효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2006년 3월 1일부로 통합하여 명실 공히 국내 유일의 대학법인 축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건국유업은 1964년 설립 이래 45년간 국내 최초, 최고의 대학우유로서의 자부심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 판매해오고 있다.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과,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및 동물자원연구센터와의 유기적인 산학협동을 통한 일반 기업에서는 쉽게 다루지 못하는 최신기술과 공법 제품들을 많이 선보여 왔다. 특히, 국내 최초의 저온살균우유인 “건국 프리미엄 닥터유”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CLA(공액리놀레산)를 우유에 천연적으로 함유된 “건국 헬스플러스” 제품을 이미 지난 1998년도에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우유의 영양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포켓밀크”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정제형 제품으로 지난 2005년 북한 수해 현장에 대북 구호품으로 지원되어 그 우수성을 자랑한 바 있다. 전국적인 판매 및 냉장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지난 1999년 중부권의 중심지역이자 청정지역인 충북 음성에 대지 33,000평, 연건평 13,000평 규모의 최첨단 신공장을 완공,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게 되었다. 저유능력 일 600톤, 생산능력 일 400톤으로 약 20여 종의 제품을 전국 30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당일생산, 당일 주문한 신선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유통시장에의 적극적인 진출로 현재 시중 대형할인 매장에서 건국우유의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건국햄은 지난 1966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모태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국내 최초의 대학 육제품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설립 이래 최고급 육제품을 전량 수제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중상류 이상의 고객층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당사에는 육제품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직접 인증받은 전문 마이스터가 있어 독일 현지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독일 연방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건국유업과 마찬가지로 충북 음성에 최첨단 신공장을 완공하여 일생산량 4톤 규모로 약 50여 종의 제품을 생산, 국내 굴지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및 직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건국햄은 곧 고급 수제육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건국유업 · 건국햄 음성공장〉



〈건국유업 · 건국햄 제품 생산 과정〉

이렇듯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건국유업과 건국햄은 2006년 3월 역사적인 통합을 하고 상호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 · 건국햄”으로 변경, 본격적인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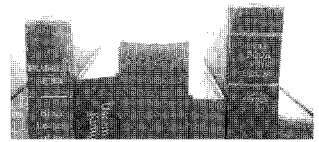
또한, “국민건강과 장학사업에 기여하는 종합식품회사”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에는 중장기 경영전략 “VISION 2010”을 수립, 대내외에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주요 사업군별로 4대 핵심사업으로 유제품사업, 육제품사업, 건강기능식품사업, 외식사업을 선정, 집중육성하고 있다.

먼저, 유제품 사업은 2000년대 이후 웰빙바람과 함께 불어 닥친 동물성 식품 기피현상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유제품 시장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가운데에도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전국 30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매출을 성장시켜 왔다.

특히, 작년 2008년부터는 그간 다져온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유통시장에의 적극적인 진출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현재 2008년 대비 약 2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출시 품목 또한 백색시유, 발효유에서 두유류, 연유 및 기타 가공식품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 향후 당사의 매출신장과 경영목표 달성에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제품사업은 약 반세기 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간 고급육제품 전문생산에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자 가격대별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 판매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백화점, 유통점뿐만 아니라 당사 직영매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업계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Co-Biz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합 육가공제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수익선의 다변화를 통해 사업규모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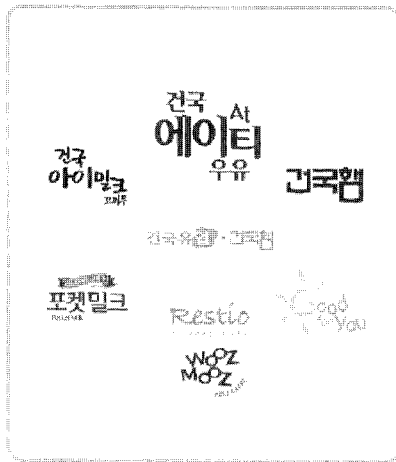
당사는 2006년 6월 국내 최초의 식약청 개별 인증형 제품인 “건국 다이어트 CLA”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개시하였다. CLA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에 출시된 유제품인 “헬스플러스”의 생산으로 축적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영원한 건강식품인 홍삼제품과 비타민제품 등 약 20여 종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2008년도 말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건국 헬스 & 미”를 의욕적으로 런칭하고, 현재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다양하고 우수한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3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급년 증으로 개설한다는 목표가 있다. 또한, 신소재의 개발을 통한 제품출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말에는 노화방지 및 항알러지 효과가 탁월한 MSM제품을 출시하여 점차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제품과 육제품을 활용한 식자재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되어 지난 2006년 3월에는 신개념 퓨전 베이커리 레스토랑 “레스티오” 1호점을 오픈하여 외식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현재 3호점까지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급년 증으로 주요 대도시 요충지에 매장을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본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2004년 1월 당시 당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인적 운용 및 관리시스템의 낙후로 경영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었다. 이에 취임 이후 즉시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 최상층부터 말단 직원까지 의식개혁과 시스템 개선, 낭비요소 제거를 동시에 추진하였고, 특히 영업활동에 있어 위기가 곧 기회

라는 의식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 700억 원대에 머물던 당사의 매출액을 지난 2008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액인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금년은 약 20% 성장한 1,200억 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2020년, 2025년까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건실한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인은 우리 건국 유업·건국햄이 학교법인 기업의 성공사례로서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간 노력해온 점은 내부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매출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교법인, 특히 대학법인 기업은 투명성과 건전성이 생명이다. 이는 대

외적으로 밝고 건전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학교법인 기업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일반 기업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하루 이틀에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근간에 있어서의 당사의 약진은 이러한 기업이념을 지키기 위해 약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간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고도 우리 건국유업·건국햄이 이렇게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사명감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국민건강과 장학사업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국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숙이 각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필 / 자 / 소 / 개

박홍양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독일 히노버 낙농대학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독일 괴팅겐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부회장, 한국해양생물 연구회 부회장, 한국양돈산학 연구원 부회장 및 건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세아 태권도연맹 고문,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로는 기업경영, 산학협력, 대학발전 및 내실교육, 댄스스포츠 활성화 등이다.

“

학교법인, 특히 대학법인 기업은 투명성과 건전성이 생명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밝고 건전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학교법인 기업의 사명감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일반 기업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하루 이틀에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